

차라리 그 돈이면

1999년 초가을에 접어든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인근 해변은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1년을 통틀어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3개월 정도가 고작이어서 필자의 가족이 여기에 도착하기 몇 주 전까지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항상 넉넉해서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쉽게 성내고 분해할 일도 그냥 웃어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이곳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호의적이어서 때로는 과다한 친절에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중국과는 오랜 국경분쟁에 시달려야 했고, 일본은 영토분쟁과 그들의 이혜타산적인 습성이 이곳 사람들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정서와는 곧잘 통하는 데가 극히 많아, 지금도 필자는 기회가 되면 퇴직 후에 그곳에서 지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뿐이겠지만 말입니다.

필자는 그때 아내와 아들 그리고 뱃속에 든 딸을 데리고 휴가차, 정확히는 특별한 의도가 있어 이곳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때 이른 저녁 해변에서 필자 아내 그리고 아들은 주변에 있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넉넉하고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혼자 저만치 동떨어져 어느 한 여인과 다소곳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찰랑이는 금발에, 다소곳한 몸매에, 어깨가 보일 듯 말 듯 한 블라우스를 걸치고, 한 뼘 종아리가 드러난 핑크색 바지에, 앞 코가 헤어진 그렇지만 볼품없지 않았던 단화를 신고, 연약해 보이는 어깨에 조금은 무거운 듯 한 가방을 울러 매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편으로 넘어갈 즈음까지 한 참을 서 있다가, 그녀는 필자 어깨에 기대어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이내 필자는 그녀를 살포시 안아 다독이면 서 그녀의 가방을 대신 메고 해변을 뒤돌아서야만 했습니다. 필자 아내는 필자의 이런 모습을 끝까지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녀가 루드밀라(Ludmila)였고, 그때가 정확히 1999년이었습니다. 지금 부터 그녀를 알고 필자 품에 안아 서로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낱낱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가 직장생활에 임하고 있었을 때, 그곳 블라디보스톡에는 필자 회사의 물품을 수입하여 러시아 전역에 공급하고 있었던 바이어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명을 치비스(Chibis)라고 했습니다. 1995년 혹독히 추웠던 겨울 어느 한 날, 필자는 혈혈단신으로 치비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출장의 목적은 그간의 애로사항과 향후 그들 사업계획에 비추어

우리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모저모를 협의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치비스라는 회사는 극동에서 나름 성공한 굴지의 기업으로서 러시아 선철(銑鐵)을 직접 그들 선박에 실어 일본 고베(Kobe)에 내다 팔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수입하여 러시아 전역에 공급하는, 곧 우리식대로 이야기하면 종합무역상사였습니다. 여하튼 필자는 당시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치비스 회사의 사장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할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젊은 사장은 눈에서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광채가 빛났고, 영화배우 못지않은 생김새에, 같은 남자로서도 질투를 느끼게 할 정도의 당당함과 기품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입니다. 이내 그 소름은 현실이 되었는데, 곧 나중에 인근의 또 다른 바이어로부터 알게 된 사실로 그들은 명색이 종합무역회사로서 뿐만 아니라 소위 거대한 마피아 조직까지 회사내부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인지는 몰라도 사장과 마주 앉아 상담에 임할 당시 필자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 사장 외에 다른 부하직원들이 그 곁에 배석하지 않고, 모두들 주변에 어중간하게 서서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필자는 딱딱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젊은 사장에게 농담을 건넨 뒤 분위기를 무르게 한 후 상담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사장님 시계가 너무도 멋있어 보이네요”

“모르긴 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보이는데, 한 번 차보면 안 될까요?”

젊은 사장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까닭에, 통역을 통해 필자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통역이 필자의 말을 전하는 순간 필자는 직감적으로 주위의 분위기가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뻣뻣하게 굳어 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것도 아닌 일에 젊은 사장은 짐짓 머뭇거리다 마지못한 눈초리를 던지며 필자에게 시계를 벗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통역은 필자에게 그 시계는 시가로 미화 3만 불을 호가한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필자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가장 비싼 시계였습니다. 필자는 시계를 이리 저리 만지작거리면서 연신 감탄사만 늘어놓고 그리고는 이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 평생 이런 시계를 차볼 때가 또 다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치비스가 번창하여 주위에 계신 모든 직원들도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계를 골고루 하나씩 차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마친 뒤에 필자는 테이블을 돌아 젊은 사장에게 직접 가서 시계를 채워 주고, 가벼운 윙크를 그의 시선에 내려놓고선, 다시금 필자의 자리로 돌아와 정색하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했었기에 말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장은 필자가 의자에 걸터앉아마자 성큼성큼 필자에게 걸어와 으스스하게 한번 껴안고는 상담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다만 오늘 저녁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테니 지금 즉시 호텔예약을 취소하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통역을 시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하 2사람을 팔려 보내 주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필자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호텔예약을 취소하고
이윽고 젊은 사장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그 집은 필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에서
본 스칼렛 오히라(Scarlett O'Hara)의 집 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영문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상담에서 필자가 이야기했던, “잠시 차보고
주겠다”는 말은 러시아의 관습상 “거저 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습니
다. 그들에겐 남의 물건을 잠시 “빌려 달라”는 말은 여하히 있을 수가
없는 말로써, 곧 “달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젊은 사장이 필자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었던 시계를 다시
돌려준 행동 자체는 필자가 그들을 사업상 파트너이기 이전에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과 다름이 없었고, 이에 선뜻 젊은
사장은 필자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의 변이였습니다. 필자를
그들의 사장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목에서 수하 2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들려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젊은 사장의 이름이 로마노프(Romanov)였
고, 그곳에서 필자에게 성대한 저녁만찬과 또한 잠자리까지 돌보아주었던
장본인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루드밀라(Ludmila)였던 것입니다.

저녁식사 이후 로마노프는 필자에게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에 대하여 또한 아내 루드밀라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가
이루지 못했던 한 가지는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노프는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를 돌보아
준 부모님도 후견인도 그리고 친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돈과 힘이었다고 했습니다. 곧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재력과 힘 앞에 다들 모였을 뿐이지 정작 마음에서 우러난 뜻 깊은 사람과 사랑했던 대상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 그 인생역정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그는 필자에게 의형제를 맺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로마노프는 필자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필자는 그렇게 힘없이 로마노프와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앞친 데 댔친 격으로 불행히도 그가 필자의 손아래였던 까닭에, 필자는 그의 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지에 마피아 두목의 형으로서 등극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은 아니었지만 이후로 필자의 동생 로마노프는 그간 개인적으로 필자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컨대 필자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었고 매마다 필자 집안의 대소사까지 일일이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로 로마노프는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설득하여 그의 소원대로 양자(養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생 로마노프가 필자에게 그리고 자신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시나브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넉넉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히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이 채 걸리질 않았습니다.

필자의 아버님은 동생 로마노프를 양자로 맞으시면서 그의 한국식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못사람들에게 만 가지(萬) 은혜를 베풀어 (露) 그들로 하여금 밝고 깨끗한(皓)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노만호’(露萬皓)라 지어주셨습니다. 이에 동생 만호는 극동(極東)에 그의 손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의 수고를 감당할 것임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필자의 동생 만호는 나실인(Nazir, Nazirite, נָזִיר)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서 로마노프, 아니 노만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로마노프가 그가 서원했던 바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시작할 즈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수고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뜻밖에도 그를 거두어가셨습니다. 계기는 그의 주변에 있었던 세상의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세상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던 것입니다. 1997년 이른 봄 즈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이후로 루드밀라는 고인이 된 남편 로마노프의 유지를 받들어 사재를 털어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또한 저 멀리 사할린(Sakhalin)과 이르쿠츠크(Irkutsk)까지 아담하고도 예쁜 교회는 물론 노숙자나 알콜중독자를 위한 복지시설까지 하나하나 세워나갔습니다.

로마노프의 서원으로서 그의 손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 사랑 갖든

사람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했던 사명을 이제 아내 루드밀라가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린 다윗의 손에 성전을 불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의 유업으로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때 해변에서 필자에게 기댄 루드밀라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필자와 그를 서로가 복받쳐 하염없이 울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도 아마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런데 ... 오늘따라 ... 남편이 너무너무도 보고 싶어요”

이후로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루드밀라에게 몇몇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루드밀라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설령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지원을 이곳이 아닌 보다 척박하고 외진 선교의 볼모지에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시찰을 위하여 한 교회의 일부교인이 루드밀라가 개척한, 보다 정확히는 동생 만호가 개척한 교회에의 방문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루드밀라는 어김없이 그 돈이면 차라리 선교의 볼모지에 선교자금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이를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2006년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새 훌쩍 늙어버린 루드밀라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저러왔지만, 다시보기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녁식탁에 둘러 앉아 생전에 남편 로마노프가

즐거먹던 곰국을 대하고서는 또 다시 우리에게 하염없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떠나는 날 우리는 루드밀라에게 내복 100여벌을 사주었습니다. 다차(다차,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간이 별장과 텃밭)에서 농사지으며 자립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필자에게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딸) 디모테(루드밀라)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01)

이후 때마다 필자는 뜻있는 지인들과 힘을 모아 내복은 물론이고 전기장
판, 커피포트, 생필품 그 밖에 소소하나마 일정한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노만호의 시계’로부터 이처럼 눈부시게 푸르른 선교의
색을 농익게 하셨습니다. 앞서 필자가 기회가 되면 퇴직 후에 그곳에서
지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야기 했던 것은 모두가 이 때문입니다.

노만호와 루드밀라의 유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 작금의 현실을 뒤돌아볼
까 합니다. 온 교회의 성도 수십 명이 단기 해외선교를 명분으로 해외로
떠납니다. 물품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저마다의 소질을 도구
삼아 그렇게 단기 해외선교를 떠납니다. 필자가 아는 한 교회는 무려
약 200여명이 떠났다고 하니 그 위세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쌀 포대를
나누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학용품이나 생활용품도 나누어주며, 집
벽에 페인트칠도 보수도 해주고, 의료용구나 의약품도 전달하고,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즐거운 한마당을 열어도 보고, 그도 이 모든 활동을 사진
폭에 담아 교회 입구에 쪽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때마다 동생 만호와
루드밀라가 필자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기 해외선교가 나쁘다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이 많이 상하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